

일본인 지주 가옥

현황 사진

위치 및 지형

건물의 배치 및 현황

건축적 특성

연혁

활용방안

1. 현황 사진



일본인 지주 가옥_항공사진



일본인 지주 가옥_항공사진



일본인 지주 가옥_전면



일본인 지주 가옥_좌측면



일본인 지주 가옥_우측면



일본인 지주 가옥_우측배면



일본인 지주 가옥_출입구



일본인 지주 가옥_지붕



일본인 지주 가옥_창호



일본인 지주 가옥_박공



일본인 지주 가옥_지붕



일본인 지주 가옥_가구구조



본 건물은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에 있다. 1935년경 일본인 쿠로즈미 이타로(黒住 猪太郎)가 일본에서 직접 자재를 들여와 지은 주거용 건물이다.

1. 위치 및 지형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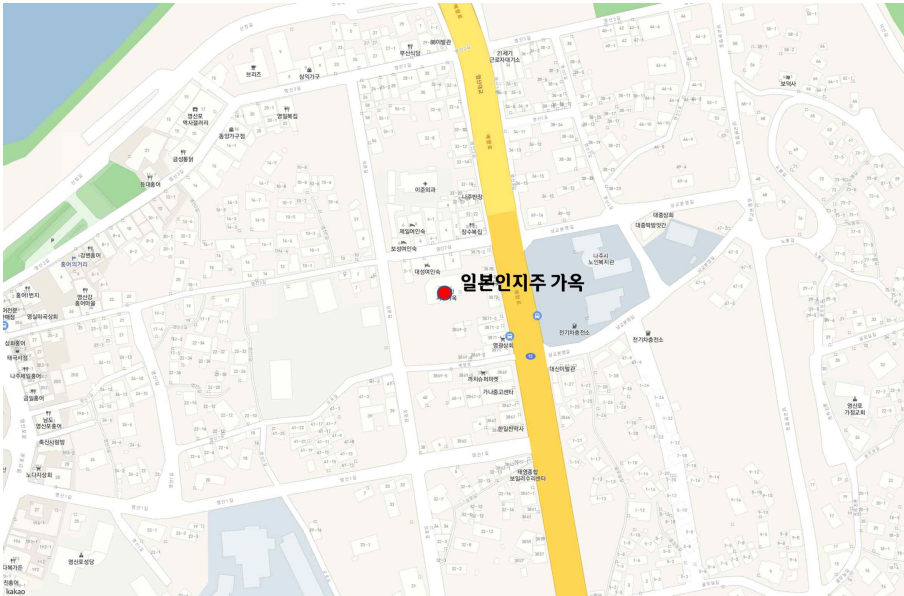
1) 나주시 홈페이지 지명 유래
집 참조. (www.naju.go.kr)

일본인 지주 가옥은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3871-4(영산동 66-1)에 있다.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은 과거 나주 영산포 과거 본정통이라 불리던 영산포 흥어 거리 인근에 있다.

본 건물이 있는 나주시 영산동은 과거 영산포라고 불리던 곳으로 바닷길로 연결된 당시 큰 포구였다. 일제가 나주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탈해 가려고 목포, 군산과 함께 전략적으로 개발했던 지역으로 각종 금융기관, 관공서, 기타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이었다.



일본인 지주 가옥_파노라마



일본인 지주 가옥_위치도

2. 건물의 배치 및 현황

일본인 지주 가옥 건물은 대지면적 1,022㎡, 연면적 221.49㎡, 건축면적 221.49㎡인 지상 2층 목조, 주거 전용 건축물이다. 과거 기록에 의하면 1935년 일본에서 일본인 쿠로즈미 이타로(黒住 猪太郎)가 직접 목재와 기와, 벽돌 등을 들여와서 지었다고 한다. 건물 전면에는 넓은 마당과 정원을 형성하였다. 건물 벽체는 회벽이며 내부 마감은 마루와 다다미로 구성된 전형적인 일본 양식 가옥이다.

2009년 나주시가 매입하여 1935년 당시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현재 전통찻집 다향, 나주 역사 교실, 나주시 노인복지관 행복마을 문화사업장소로 활용 중이다. 인근에 조선식산은행 영산포지점 건물(영산포 역사갤러리)이 있다.



일본인 지주 가옥 외관



일본인 지주 가옥 외관

3. 건축적 특성

일본인 지주 가옥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1935년에 사용승인으로 기재되어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 나주지역에서 가장 큰 지주였던 쿠로즈미 이타로(黒住 猪太郎)가 살던 집으로 1930년대 일본식의 주택과 의양풍이 섞인 일본 농촌주택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건물 좌측 부분만이 개수되었을 뿐 전체 외형은 일본 목조 와가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본 건물은 건축된 1935년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 지주 가옥 건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이다. 특히 목재 외부 창 등 외형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 마루와 다다미 등 옛 모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가옥 건물의 원형을 잘 알 수 있는 건물로 지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인 지주 가옥_전면



일본인 지주 가옥_기둥가구구조



일본인 지주 가옥_기단



일본인 지주 가옥_지붕가구

4. 연혁

1935년경에 구로즈미 이타로(黒住 猪太郎)가 건축에 관련된 모든 자재를 일본에서 직접 가져와 지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가옥 건물은 1945년 해방 후 선교사가 고아원 건물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그 이후 1981년 개인이 매입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 2009년 나주시가 매입하여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였다. 현재 건물은 외부와 내부 복원 이후 나주시 노인복지관에 관리를 맡겨 영산포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일제 강점기 역사 교육의 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활용 및 전통찻집(다향)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인 지주 가옥_출입구



일본인 지주 가옥_지붕

5. 활용방안

본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영산포 근대화 거리 및 영산포 흥어 거리와 인접하고 있으며 현 건물의 입지 및 건축 현황상 활용 가치가 높고 활용에 이점이 있다. 외부 요인은 도보 10분 이내 조선식산은행 영산포지점 건물(영산포 역사갤러리)이 인근에 있고 영산강 체육공원 등 문화유산이 존재하여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영산포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일제 강점기 역사 교육의 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 및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

현재 나주시에서 본 건물을 나주시 노인복지관 행복마을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영산포 역사갤러리와 함께 임대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득사업으로 활용 중이다.

부록 개요서

| | |
|--------|--|
| 문화재명 | 일본인 지주가옥 |
| 문화재지정별 | 비지정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66-1(예향로 3871-4) |
| 연면적 | 대지면적 1,022㎡, 연면적 221.49㎡, 건축면적 221.49㎡ |
| 건물 수량 | 1동 / 지상 2층 |
| 분류 | 주거시설 |
| 주요 구조 | 목조 |
| 주용도 | 주거시설 |
| 주요외장재 | 목조 |
| 지붕재 | 일본식 기와 |
| 창호 | 목재 / 유리 |
| 건립연도 | 1935년경 |
| 활용방안 | 일제강점기 역사 교육의 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활용 |

